

'K-디즈니 순천'의 시작 캐릭터 설치

인공지능(AI) 설계 첫 캐릭터...감각적 인증샷 명소 기대 국가정원 남문입구·오천로터리, 순천의료원로터리 설치



지난해 천만 명이 육박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초대박을 터트린 순천시가 올해도 도심 곳곳에 문화콘텐츠를 입혀 새로운 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는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K-디즈니를 선택했다. 잘 갖춰진 정원이라는 아날로그 판에 애니메이션을 얹힌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해 순천의 미

래를 열어가겠다는 'K-디즈니 순천'을 선택한 것이다. 시는 우선 도심 주요 지점 3개소에 캐릭터를 설치하여 'K-디즈니 순천'의 출발을 알렸다. 지난 3월 28일 국가정원 남문입구, 그린 아일랜드 입구 오천로터리,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꿈꾸는 순천의료원로터리에 각각 특색 있는 캐릭터를 설치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의 첫 관문인 국가정원 남문입구에는 여행자의 모험정신을

담은 탐험가 캐릭터를 설치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 그리고 그린아일랜드의 광활한 면적을 탐험하고자 하는 본능을 자극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린아일랜드 입구 오천로터리에는 활동적이고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캐릭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에게는 그린아일랜드와 국가정원으로의 자연스러운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원로터리에 설치한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를 형상화한 것으로 원도심의 창의적인 잠재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상징한다.

이번에 설치한 캐릭터는 인공지능(AI)이 디자인한 것을 실제로 제작하여 설치한 첫 사례이며, 앞으로도 도심 속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입혀 'K-디즈니 순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범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설치한 캐릭터는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감각적인 인증샷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디즈니 순천으로 가는 첫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 교육

보성군은 다가오는 영농철을 맞아 지난 21일 벌교읍 추동리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3월 실시된 순회 수리는 3월 21일 벌교읍 추동리와 28일 노동면 광곡리에서 전담팀이 나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고장진단, 자가 정비, 부품 교체 요령 교육, 농기계 고장 예방 방법 및 안전 사용 요령 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농업인들의 농기계 정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 부품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 무상으로 부품을 지원해 농업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보성군은 올해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전담팀이 구성돼 벌교읍 추동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30회에 걸쳐 12개 읍면 오지

마을의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예초기, 방제기 등의 농기계 점검·수리와 농업인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다가오는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에 놓이는 만큼 농기계 정비 및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바란다"라며 "수리가 필요한 관내 농업인은 각 농민상담소에 일정 확인 후 앞으로 진행될 순회수리 교육에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99개 마을 579개 농가에서 375건의 정비, 573건의 수리를 진행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과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공영민 고흥군수, 노인대학(원) 초청 특강 '호우'

인생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그리다 주제로 진행

고흥군은 지난 3월 28일 (사)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원) 강의실에서 노인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생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노인대학(원)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특강은 인생 100세 시대 열정 넘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방법, 민선 8기 균형 방향 및 지역 현안 등을 설명하고 노인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곳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특강에 참석했고 모두 강의에 집중하며 배움에 대한 열기를 보여줬다. 노인대학 박정수 학장은 "균정으로 바뀐 와중에도 노인대학을 위해 특강에 나서준 공영민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균형 방향 및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궁금한 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의 개념은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경륜 있는



어른으로 품격과, 끊임없는 열정,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흥군 복지시책의 목표는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 만들기"라며 "어르신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최초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버스 운행 개시

3월 중 첫 수소버스 3대 운행, 오는 8월에는 시내버스 2대도 운행 계획

광양시에서 첫 수소버스가 출고되어 이달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수소버스는 관광버스, 그동만 수소승용차에 집중했던 광양시 수소차 보급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수소 버

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관광버스 8대를 추가 보급하고 오는 8월부터는 수소 시내버스 2대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약 71억원(국비 58억, 도비 10억, 시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구입 보조금으로

1대당 수소 고상버스 3억 7천만 원, 수소 저상버스 3억 9천만 원을 지원한다.

구입 보조금을 감안하면 민간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수소 고상버스 2억 원, 수소 저상버스 1억 3천만 원으로 일반버스 구입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오희 신산업과장은 "이번 수소버스 출고를 시작으로 수소차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여수산단기업 지역민 우선채용, '한국바스프' 동참

양 기관 상생발전·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협력키로

한국바스프(이윤신 여수공장장)가 여수산단 내 지역인재 채용 협약 동참 24번째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오후 시장실에서 여수시와 한국바스프(주)가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과 이윤신 한국바스프(주) 여수공장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기관의 상생발전과 여수지역 청년실업 해소, 인구 증가 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바스프는 지역민 우선 채용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여수시는 많은 산단 기업이 지역민 우선채용 시행에 참여하도록 도로·하천·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기업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신 여수공장장은 "기업의 성장에는 지역과 상호협력의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상생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올해 첫 협약을 계기로 지역 인재들이 산단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을 기점으로 청년들의 취업뿐 아니라 양 기관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협약을 비롯해 지난 2017년부터 LG화학, GS칼텍스, 남해화학, 금호석유화학, LX MMA, 롯데케미칼 등 24개 여수산단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